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결정요인 분석

유지연<sup>1</sup>, 석희정<sup>2\*</sup>

<sup>1</sup>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sup>2</sup>경기복지재단

### Analysis of Determinants of Extreme Low Credit Loans in Gyeonggi-do

Ji-Yeon Yu<sup>1</sup>, Hee-Joung Seok<sup>2\*</sup>

<sup>1</sup>Institute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sup>2</sup>Gyeonggi Welfare Foundation

**요약**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경기도는 금융복지의 일환으로 극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실시하였다. 3년 동안 110,217명에게 1,383억 1,850만 원의 대출이 집행될 동안 선행연구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서민금융복지의 일환의 하나로 소개하거나 극저신용대출자의 특성을 파악 및 관리방안 체계 수립에 주안점을 뒀는데 따라 극저신용대출의 이용자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극저신용대출자를 대상으로 하여 빈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반)전세일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부채가 있을수록, 의료비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단초를 제공한 것에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Because the working class economy was in crisis due to the unexpected COVID-19 outbreak in 2020, the Gyeonggi-do Extreme Low Credit Loan Project was launched to address the financial welfare of people with an extremely low credit rating and low income. After loans totaling KRW 138.3185 billion were issued to 110,217 people over three years, studies focused on introducing extreme low credit loans in Gyeonggi-do as part of a microfinance welfare program,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extreme low credit loans or establishing a management plan. Accordingly, in-depth research on users of extreme low credit loans has not been conducted. Therefore, from identifying determinants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rgeting extreme low credit loan borrowers, older people with an owner-occupied/(half)lease had more economic activity, more debt, and more need for medical expenses.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loan, the more those borrowers used extreme low credit loan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clues to establishing a welfare support system in the future.

**Keywords** : Extreme Low Credit, Financial Welfare, Logistic Regression, Determinants, Welfare Policy

---

\*Corresponding Author : Hee-Joung Seok(Gyeonggi Welfare Foundation)

email: seokhj@ggwf.or.kr

Received February 22, 2023

Accepted May 12, 2023

Revised March 29, 2023

Published May 31, 2023

## 1. 서론

서민금융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대출 지원제도로써 중앙정부는 2010년부터 금융취약계층인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위하여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같은 제도로써 이를 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서민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1].

그러나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여파로 급격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가계부채 증가하는 등 금융위기에 처하면서 중앙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그 한계점을 드러냈다.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대출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연 소득과 신용평점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만 대출이 지원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의 폭이 좁다. 둘째, 자금 용도의 제한이다. 미소금융의 경우는 창업 및 운영자금에 한정되어 있고, 햇살론의 경우는 생계에 한정되어 있으며, 햇살론15의 경우는 기존 고금리 금융 이용자에 한하여 대환자금 성격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셋째, 고금리의 부담이다. 미소금융을 제외하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은 평균 10%대 고금리로 책정되어 있어 금융취약계층에게는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2]. 이러한 이유로 중앙 정부가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들을 개선하여 출시하고,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3].

이에 경기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앙 정부의 서민금융상품과 한계점을 해소하는 포용적 금융복지의 일환인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이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자의 기준(신용등급 7등급 이하 혹은 NICE 724점, KCB 670점 이하)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둘째, 대출을 5가지 유형인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로 세분화하여 대출 용도의 폭을 한층 넓혔다. 무엇보다도 연 1% 초저금리로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결과적으로 극저신용대출은 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조차 배제하여 금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신용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들 중심으로 연 1% 초저금리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이 당면한 생계의 위협을 감소시켜 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전국 최초의 서민금융상품이다.

2020년 1차 대출을 시작으로 하여 2022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대출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총 110,217명의 경기도민에게 1,373억 1,850만 원의 대출이 집행되었다[1].

3년 동안 극저신용대출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에 관한 연구로서 극저신용대출을 서민금융복지의 일부분으로 소개하였다[4-6]. 또 다른 하나는 극저신용대출자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대출자의 관리방안체계를 수립[1-3]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극저신용대출자를 중심으로 하여 저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7]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극저신용대출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위하여 제도 구축 및 운영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극저신용대출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금융복지의 일환으로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 목적이 단순히 대출을 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소외층을 발굴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권 금융이용권을 확대시키고, 이를 위하여 경제적 자립을 연계한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1].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신용·저소득자가 극저신용대출로 유입되는 과정과 그 특성에 따라 지원체계를 달리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경향성을 보면 극저신용대출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1-3]가 존재하기는 하나 빈도분석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도분석은 각 변수에 비중을 살펴보는 데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극저신용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을 활용한 연구[7]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 초점은 극저신용대출자가 아닌 저신용으로 그 결을 달리하며, 분석 대상 역시 1인 가구로 한정함에 따라 대상의 한계성 역시 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극저신용대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빈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극저신용대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 방법

### 2.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분석 자료는 2022년에 진행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 자료는 인구사회학적 문항, 경제활동 관련 문항, 채무관련 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이 극저신용대출자들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주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축된 자료로서 본 연구에 부합한다.

분석대상은 대출 신청 당시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에 동의하고, 대출 완료 이후 만 1년이 경과한 극저신용대출자 13,102명 중에서 3개 변수(성별, 연령, 지역)의 구성 비율을 교차층화 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하여 추출한 총 1,111명이다.

### 2.2 변수 선정

종속변수는 수급 여부로 나누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현재 복지서비스를 수급하고 있다면 수급집단(Y)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수급집단(N)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3가지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주거환경 총 3개의 변수다. 성별은 남녀, 연령은 20대~70대 이상, 주거환경은 자가/(반)전세와 월세/사글세/기타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가계활동 요인'으로 경제활동과 소득 총 2개의 변수이다. 경제활동 여부는 직업의 유무로 구분하였고, 소득 여부는 기구 전체 소득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채무 요인'으로 부채와 대출 신청 사유 총 2개의 변수이다. 부채 여부는 극저신용대출 외의 부채 유무로 구분하였고, 대출 신청 사유에 대한 응답은 총 11가지의 보기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대출자들이 응답한 보기는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학자금, 통신비, 대출 상환, 사업장 임대료, 기타이기 때문에 총 7가지로 구분하였다.

### 2.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분석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빈도분석은 집단 간 변수의 비중을 살펴보는 데는 적절하지만, 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3가지 요인별 개별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모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총 3가지 모델을 구성하였다. 즉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변수들만으로 살펴보고, 모델 2에서는 가계활동 요인의 변수들을 추가하고, 모델 3에서는 채무 요인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연령과 대출 신청 사유 변수는 좀 더 명확한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더미 처리하여 적용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집단별 특성 분석

본 연구 대상자의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부터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남녀 비율이 비슷하나 남성이 좀 더 많으며, 평균 연령은 수급집단이 57세로 비수급집단 51세보다 6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경우, 자가/(반)전세가 비수급집단이 수급집단보다 3배 이상 많은 19%를 보였고, 반대로 월세/사글세/기타의 경우에는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보다 14% 많은 95%를 나타냄에 따라 두 집단 간의 주거환경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활동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의 경우, 비수급집단은 87%로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수급집단은 46%만이 참여하고 있고, 소득은 두 집단 모두 소득이 있으나 비수급집단이 수급집단보다 7% 많았다. 월평균 소득액의 경우, 비수급집단이 수급집단보다 2배 이상 많은 31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여부의 차이로 보인다.

채무 요인을 살펴보면, 부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과반수 이상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저신용대출을 신청 사유의 두 집단 모두 과반수 이상으로 생활비가 1순위로 나왔으나 2순위부터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수급집단의 경우 주거비와 의료비가 8%이나 비수급집단의 경우 사업장 임대료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oups

Variable		Y(n=423)		N(n=688)	
		%	Mean	%	Mean
Gender	Male	55	-	59	-
	Female	45	-	41	-
Age		-	57	-	51
House	Y	5	-	19	-
	N	95	-	81	-
Employment	Y	46	-	87	-
	N	54	-	13	-
Income	Y	88	-	95	-
	N	12	-	5	-
Monthly Income		-	154	-	311
Lent	Y	73	-	87	-
	N	27	-	13	-
Problem	Living	77	-	81	-
	Housing	8	-	4	-
	Medical	8	-	2	-
	Education	1	-	1	-
	Repayment	4	-	5	-
	Lental	2	-	8	-
	Etc.	1	-	0	-

3.2 결정요인 분석

극저신용대출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수급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고, 각 요인의 변수들을 차례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확률(p-value) .001은 \*\*\*로, .05는 \*로, .1은 +로 표에 표기하였다. 통상적으로 .05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1은 추가적인 요소로서 살펴해보지만, 본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는 .1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3.2.1 모델 1 :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으로 분석한 모델 1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주거환경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Factors Affecting in Extreme Low Credit Loaner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S.E)	p	B(S.E)	p	B(S.E)	p
Gender	Male	<b>.172(.132)</b>	<b>.040*</b>	.251(.144)	.082+	.265(.826)	.071+
	Female(ref.)	-	-	-	-	-	-
Age	20(ref.)	-	-	-	-	-	-
	30	.736(.786)	.349	.496(.811)	.541	.501(.826)	.544
	40	1.250(.770)	.105	1.182(.792)	.136	1.266(.806)	.117
	50	1.461(.765)	.056+	1.279(.787)	.104	1.348(.802)	.093+
	60	<b>1.872(.766)</b>	<b>.015*</b>	1.443(.789)	.068+	1.465(.803)	.068+
	70	<b>2.725(.788)</b>	<b>.001***</b>	<b>1.823(.817)</b>	<b>.026*</b>	<b>1.839(.831)</b>	<b>.027*</b>
House	Y	<b>-1.586(.256)</b>	<b>.000***</b>	<b>-1.469(.269)</b>	<b>.000***</b>	<b>-1.408(.275)</b>	<b>.000***</b>
	N(ref.)	-	-	-	-	-	-
Employment	Y	-	-	<b>1.975(.172)</b>	<b>.000***</b>	<b>1.845(.177)</b>	<b>.000***</b>
	N(ref.)	-	-	-	-	-	-
Income	Y	-	-	-303(.279)	.278	-198(.286)	.489
	N(ref.)	-	-	-	-	-	-
Lent	Y	-	-	-	-	<b>.419(.187)</b>	<b>.025*</b>
	N(ref.)	-	-	-	-	-	-
Problem	Living	-	-	-	-	.721(.406)	.076+
	Housing	-	-	-	-	.961(.497)	.053+
	Medical	-	-	-	-	<b>1.843(.533)</b>	<b>.001***</b>
	Education	-	-	-	-	.707(.791)	.371
	Repayment	-	-	-	-	.982(.519)	.059+
	Etc.	-	-	-	-	(omitted)	-
	Lental(ref.)	-	-	-	-	-	-
	_cons	-	-	-2.260***	-4.200***	-5.494***	-
n	-	-	1111	1111	1108	-	
Pseudo R <sup>2</sup>	-	-	.082	.190	.205	-	

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일수록, 연령은 50대 이상일수록, 주거환경은 자가/(반)전세일수록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2 모델 2 : 가계활동 요인

모델 1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가계활동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주거환경, 경제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일수록, 연령은 60대 이상일수록, 주거환경은 자가/(반)전세일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과 모델 2의 차이점은 성별과 연령이다. 성별의 경우 모델 1에서는 .05에서 유의미하였으나 모델 2에서는 .1에서 유의미하였다. 연령의 경우에는 모델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50대가 모델 2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3 모델 3 : 채무 요인

모델 1과 모델 2에서 채무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델 3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경제활동, 부채, 대출 신청 사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일수록, 연령은 50대 이상일수록, 주거환경은 자가/(반)전세일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부채가 있을수록, 신청사유는 의료비, 생활비, 대출 상환, 주거비일수록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와 모델 3의 차이점은 연령이다. 모델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50대가 모델 3에서 다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 추적조사 자료(2022)를 통하여 극저신용대출자의 집단별 특성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보다 높았다. 주거환경에서 자가/(반)전세는 비수급집단이 높았으나 월세/사글세/기타는 수급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은 수급집단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은 비수급집

단은 87%가 하고 있으나 수급집단은 46%만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 집단 모두 극저신용대출 외에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한 사유 1순위는 동일하게 생활비였으나, 2순위부터는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극저신용대출자들의 결정요인으로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자가/(반)전세일수록, 부채가 있을수록, 의료비·생활비·대출 상환·주거비로 신청할수록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저신용대출은 고연령층에게 좀 더 알맞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극저신용대출 신청 자격이 극저신용자에게 청장년층의 경우엔 저신용자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장년층보다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고연령일수록 극저신용대출의 효과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가/(반)전세일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영향력이 큰 것은 '상환'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5년 만기 일시금 상환을 해야 하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상환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자일수록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셋째, 부채가 있을수록 영향력이 큰 것은 연 1%의 초저금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고금리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이자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극저신용대출 신청 사유로 특히 의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의 빈도분석으로는 알기 어려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극저신용대출이란 것 자체로 경제적인 문제를 담고 있고, 그를 증명하듯 압도적으로 신청 사유에서 생활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자칫 경제적인 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석을 통하여 오히려 의료에 관련한 복지지원체계를 우선순위로 하여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이 결과는 고연령일수록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연령의 극저신용자들에게 있어서 의료비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자금을 융통 및 사회안전망 속으로 유인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

여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 재기 및 자립[1]을 위한 극저신용대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극저신용대출자로 한정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분석에서 활용한 추적조사 자료(2022)는 극저신용대출을 받지 않는 대조집단군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데이터가 보강된다면 더 많은 함의를 담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H. J. Seok, S. J. Park, H. Namgung, J. Y. Yu, S. M. Yu, Analysis of Welfare Needs for Extremely Low Credit Loans in Gyeonggi-do, Policy Report, Gyeonggi Welfare Foundation, Korea, pp.3-119.
- [2] H. J. Seok, H. Namgung, S. J. Park, S. M. Yu, Gyeonggi-do Ultra-low redit loan repayment and support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study, Policy Report, Gyeonggi Welfare Foundation, Korea, pp.3-163.
- [3] H. J. Seok, S. J. Park, D. Y. Wo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Gyeonggi-do Extreme Low Credit Loan Project Participants, Policy Report, Gyeonggi Welfare Foundation, Korea, pp.1-130.
- [4] H. J. Seok, J. S. Seoub, E. S. Koh, Analysis of user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 Minority Financial Welfare Support Center, Policy Report, Gyeonggi Welfare Foundation, Korea, pp.1-77.
- [5] H. J. Seok, S. J. Park, Gyeonggi-do low credit, low-income credit guarantee support business operation plan, Policy Report, Gyeonggi Welfare Foundation, Korea, pp.1-59.
- [6] H. J. Seok, S. J. Park, S. M. Yu,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financial welfare projects for the poor in Gyeonggi-do, Policy Report, Gyeonggi Welfare Foundation, Korea, pp.7-73.
- [7] S. J. Park, H. J. Seok, "Factors Affecting Low Credit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cus on Gyeonggi Ultra Low Credit Loaners",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vol 11, No 10. pp.121-143, 2022. DOI: <https://doi.org/10.24826/kscs.11.10.8>

유 지 연(Ji-Yeon Yu)

[정회원]



- 201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소득보장, 정책서민금융, 주택연금, 자산복지, 삶의질

석 희 정(Hee-Joung Seok)

[정회원]



- 2000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20년 6월 ~ 현재 :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관심분야>

정책서민금융, 금융복지정책, 자산형성, 소액금융대출